

사진으로 보는 창평 슬로시티

내일부터 '마을'전

느리지만 행복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답양 창평 슬로시티에서 이장들이 마을 사진전을 연다. 답양군 창평 슬로시티 위원회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한 달간 창평 슬로시티 건강증진센터에서 '슬로시티 마을 사진전'을 개최한다. '마을, 시간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6명의 마을이장들이 그동안 카메라를 들고 직접 찍은 사진 30여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이들은 고관석(오강리)·이원후(화양리)·이정섭(유곡리)·정찬섭(유천리)·조재용(광덕리)·하진찬(외동리) 등 모두 6명으로 슬로시티 주변마을 이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10차례에 걸쳐 슬로시티 위원회 주관의 사진교육을 받았으며, 창평면 일대의 마을 모습·주민들의 일상·고택·정겨운 농촌의 풍경 등을 영예에 담았다.

답양 창평 슬로시티 위원회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오래된 돌담길과 고택을 돌아보면서 마을의 휴식을 느껴보고, 마을장터 체험과 문화공연, 마을을 기록한 이장들의 사진전을 통해 옛 향기를 느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목포~제주 초쾌속선 17일 첫 취항

2시간50분 주파 '퀸스타호' 고객맞춤 최상서비스

목포~제주 항로에 2시간대의 초쾌속선이 취항한다. 씨월드고속훼리(주) (회장 이혁영)는 "목포~제주간에 국내 최대·최고·초호화 크루즈 여객선 '퀸스타호' (5360t)가 17일 오전 8시 취항한다"고 10일 밝혔다. '퀸스타호'는 여객 880명과 차량 200대를 동시에 수송할 수 있다. 38노트(시속 70km)로 종전 4시간 50분이 걸리던 항로를 2시간 50분 만에 주파

한다. 전좌석이 항공기 비즈니스급의 안락한 의자로 구성됐다. 요금은 ▲일반석 4만 8150원 ▲우등석 5만3150원 ▲승용차 10만4580원 ▲화물차(4.5t) 16만2950원이다. 쾌속선은 매일 오전 8시 목포항을 출항한다. 쾌속선 취항과 함께 매일 '퀸스타호'는 여객 880명과 차량 200대를 동시에 수송할 수 있다. 38노트(시속 70km)로 종전 4시간 50분이 걸리던 항로를 2시간 50분 만에 주파



영에서 제주항로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혁영 회장은 "기존 쾌속선들의 단점인 좁은 공간과 배멀미를 탈피해 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 배멀미가 없는 선박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여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며 "여객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고의 시설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맞춤형 여객선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씨월드고속훼리는 16일 오전 11시 목포 국제 여객터미널에서 취항식을 가졌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tlee@

나주시·주민 KTX노선 배제 반발

시민단체, 대규모 집회 결의... 임시장 "강경 대응하겠다"

호남고속철도(KTX) 광주~목포 노선이 기존의 나주역 대신 무안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고속 신선으로 사실상 결정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나주시와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임시총회 나주시장은 지난 9일 공식 입장을 취소하고 국토해양부를 향해 KTX 나주역 경유 안을 꼭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나주시 시민단체들은 지난 8일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서명운동과 전남도 항의방문,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KTX 나주역 경유 관철'을 촉구하는 여론조성과 대규모 집회에 나설 것으로 계획했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손영철기자 ycsn@

는 15개 공공기관의 노조위원장들도 빠른 시일내에 나주에서 "KTX의 나주역 경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이전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명 작업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장은 "KTX의 나주역 경유는 나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주·전남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빛가람 공동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음에도 이를 도외시켰다"며 "KTX의 나주역 경유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서 대응하겠다"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손영철기자 ycsn@



목포 북항 활어위판장 경매 시작

목포시 북항 해양수산복합센터내 활어위판장이 10일 초매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어위판 업무를 시작했다. 활어 위판장은 소속 종매인 31명이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낙지와 농어·민어·돔·전복 등 당일 어획된 활어를 상인들에게로 경매한다. <목포시 제공>

기자노트

화력발전소 유치를 놓고 6개월 동안 빚어졌던 찬·반 갈등이 지난 7일 해남군의회 부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해남군의회 이번 표결 결과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상임위와 본회의의 표결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것일까?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4일 상임위 표결 후 몇몇 의원들의 소신이 꿩꿨거나, '보이지 않는 큰 힘'에 의해 누군가 굴복했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해남군의회는 '식물의회'라는 오명에서 벗

해남군의회, 제 역할 다했나?

공급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열렸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두고 4시간 이상의 심의와 토론 끝에 4:1로 가결시켰다. 상임위에서 동의안이 통과되자 대부분의 주민은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본회의의 표결 결과는 찬성 3, 반대 5, 무효 3표로 뒤집어졌다. 이같은 결과는 해남군의회 사상 초유의 일이다. 상임위에서 찬성이 4표였는데 무슨 곡절이 있었길래 본회의에서 1표가 줄었던



박희석 <서부취재본부>

어ना기 어렵다. 주민 대표인 의원이 의회에 따라 소신을 바꾼다면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라고 어느 누가 믿음을 가질 것인가? 또, 무효 3표는 책임감없이 의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화력발전소 유치 문제는 일단락됐다. 주민들은 그동안 찬·반으로 갈라졌던 갈등을 씻고 화합에 노력해야 한다. 해남군의회 역시 무소신에서 벗어나 주민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다. 화력발전소 유치 과정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dia@

20일 곡성 기차마을서 '마라톤·걷기대회'

곡성 기차마을에서 장미꽃과 함께 하는 마라톤 축제가 열린다. 곡성군은 오는 20일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2012 장미꽃 마라톤 및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종목은 ▲풀코스(42.195km) ▲하프코스(21.0975km) ▲10km ▲5km ▲3km 걷기 등

으로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www.jm-marathon.co.kr)나 전화(1644-4219). 참가비는 3만원(5km 1만원)이나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참가자는 우대(5000원)한다. /중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전 북

정읍교육청, 소년체전 선수단 노고 격려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장택수)은 지난 9일 정읍 동초등학교와 서초등학교, 정일여중을 찾아 제41회 전국 소년체전에 대비해 구슬땀을 흘리면서 최후 마무리 훈련을 하고 있는 핸드볼·배드민턴 선수 40명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소년체전에 정읍지역은 정읍 동초등학교 배드민턴을 비롯해 4개 종목(육상·수영·핸드볼·복싱)에 출

전할 예정이다. 장택수 교육장은 "선수들이 훈련장에서처럼 최선을 다해 임한다면 그동안 노력과 인내로 열심히 연마한 기량이 심본 발휘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격려했다. 한편 '제41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오는 26~29일 3박4일간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진분홍 철쭉의 향연

"봄꽃 나들이 오세요"

내일 남원 봉화산·순창 국사봉서 축제

12일 남원시 아영면 봉화산(해발 920m)과 순창군 쌍치면 국사봉(해발 655m)에서 철쭉제가 열린다. <남원 봉화산> 흥부골 아영애향회는 12일 봉화산 일원에서 '제17회 봉화산 철쭉제'를 연다. 이날 행사는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터울림 농악공연을 시작으로 산신제·기념식·다과회·봉화산 살리기 자연보호 운동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봉화산 철쭉제> 봉화산 철쭉은 4월 하순 해발 400~500m에서부터 피기 시작해 단계적으로 개화가 이뤄져 한달여 동안 감상할 수 있다. 배래봉 철쭉군락지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색상이 붉고

선명하다. 봉화산 철쭉은 타지역 철쭉보다 크가 2(2m) 철쭉 터널속으로 사람이 들어가면 보이지 않을 만큼 우람하다. 봉화산 철쭉군락지는 아영면사무소에서 3km 거리로, 가는 길에 덩어로 흥부마을을 구경할 수 있다. 봉화산은 남원시와 장수군, 경남제·기념식·다과회·봉화산 살리기 자연보호 운동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순창 국사봉> 쌍치면 면민회는 12일 '제12회 국사봉 철쭉제'를 개최한다. 이번 철쭉제는 풍물놀이로 시작으로 산신제·판소리·가야금·플루트 연주·각설이 공

연 및 노래자랑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국사봉은 야생 산철쭉이 1.7km에 걸쳐 군락을 이뤄 장관을 연출한다. 국사봉의 연분홍 자생철쭉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100~200여년 이상 된 토종 야생 산철쭉으로 나무크기가 작은 것은 2m, 큰 것은 5m에 이른다. 국사봉 철쭉은 외부로 알려지지 시작하면서 사진작가와 등산동호인 등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매년 꾸준히 찾고 있다. 정읍시 산내면과 쌍치면의 경계를 이루는 국사봉은 자연환경과 기후조건이 철쭉의 번식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취재본부=백선·이동희기자 bs8787@

청정지역 남원 고사리 전국서 인기

굵고 부드러운 맛 특징... 年 101t 생산

남원시 운봉면 일원 고랭지에서 생산된 고사리가 뛰어난 품질로 인해 대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10일 남원시에 따르면 운봉읍 공안리에 자리한 30ha 규모의 고사리 농장에서는 본격적인 고사리 수확 작업이 한창이다. 6월 말까지 2~3일 간격으로 채취해 전국에 출하하고 있다. 남원 고사리는 일교차가 큰 천혜의 자연 조건으로 인해 대가 굵고 맛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변 환경 오염원이 없는

청정지역에서 생산돼 산채 비빔밥과 육개장 등 각종 식재료로 부가가치가 높아 현지에서 생산되는 즉시 판매되고 있다. 남원 고사리는 현재 370 농가 160ha에서 재배, 연간 101t을 생산해 97억원의 조수익을 올리는 지역 특화 소득작물로 자리 잡았다. 남원시 관계자는 "고사리 산업을 지역특화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9600여만원을 확보, 농촌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주민들이 고사리에서 채취한 고사리를 말리고 있다.

전주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지정 유력

전주시가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UNESCO City of Gastronomy)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유네스코는 전주시가 신청한 '음식 창의도시' 지정 여부에 대해 국제 NGO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상태이다. 전주시가 이번에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되면 국내에서는 서울(디자인), 인천(민속공예)에 이어 3번째

가 된다. 시는 그동안 풍부한 음식재료와 수 천 년 동안 대를 이어 전승돼온 창의적이고 다양한 조리법을 토대로 '맛의 고장'이라는 강점을 살려 유네스코 '음식(Gastronomy) 분야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해왔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전문가·민간단체 대표로 창의도시 워킹그룹을 구성, 수십 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10여 차례의 창의도시 학술행사를 열었다.

또한 '전주 음식 창의도시 기본구상'을 지난해 2월 완료하고 창의도시로서 미래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송하진 시장은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해온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이 유력시되는 것으로 관측돼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되면 세계적으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로 명명된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단신

전주·완주 혁신도시 '뺨다방' 단속 강화

전북도는 전주·완주 혁신도시 내 아파트 공급을 계기로 기층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속칭 '뺨다방'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도는 오는 24일까지 경찰서, 세무서, 전주시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전주시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1109개소와 이동식 중개업

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도는 분양가의 비정상적인 웃돈 형성, 중개업자의 부동산 시세 조작, 분양권매매 호객, 무면허 중개, 미등록 전매, 수수료 과다 청구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14~16일 '정읍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정읍시의회(의장 김철수)는 '제17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다. 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2011 회계년도 결산 감사위원 선임, 조례안 심사 및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백제가요

정읍시 오솔길' 방편책 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정읍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결산감사 위원으로 5명을 선임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김제 시립도서관 책 기증운동 300권 모아

김제 시립도서관과 (사)공공도서관협의회는 최근 책 기증 문화와 지식자원 재활용에 대한 범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책다모아 기증운동'을 전개, 300여권을 모았다. 시립도서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아진 기증도서를 김제

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김제대대 민경이동센터에서 제기증했다. 김복두 관장은 "도서 나눔을 통한 공공시설에 독서 활성화를 이루고, 지역 공공도서관과 상호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순선기자 hnews@

황숙주 순창군수, 국가예산 확보 총력

황숙주 순창군수가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황 군수는 지난 9일 환경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서를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

을 펼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군수는 유영숙 환경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4대강 수변 핵심 생태축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